

No.1

# Japan Weekly Digest

2009. 9. 25 ~ 9. 30



사단법인 **한일경제협회**
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## ■ CONTENTS

### □ 주요 일본 경제 현안

- 광공업생산지수 6개월 연속 상승
- 중소기업 경영실태, 5.0포인트 개선
- 8월 소비자물가 과거 최대 폭 하락

#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하토야마 총리 한국 방문
- 미국정부, '동아시아공동체' 에 강한 반대
- 자민당 타니가키(谷垣)사다카즈 총재 선출
- 하토야마 총리 배웅준 출판기념이벤트 참석
- 내년도 예산요구 다음 달까지 재편성 지시
- 도요타, 자동차용 합성수지 그룹일괄 조달

### 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1달러 88엔 23전까지 급등, 나오히마 경상성대신  
국내산업 영향분석 지시
- 엔고로 전략 전환 압박
- 소규모공장·농가 엔고에 분노와 탄식

#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경제의 버팀목, 부품·소재산업, SERI

\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
일본지식정보센터

### Japan Weekly Digest (No.1)

(사)한일경제협회  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  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 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  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  
02-3014-9800

## □ 주요 일본 경제 현안

### ○ 광공업생산지수 6개월 연속 상승 (경제산업성, 9/30)

- 친환경차 감세 등으로 자동차관련 산업이 호조를 보인 결과
  - 올해 2월 69.5를 저점으로 반전, 8월 현재 84.1로 회복 추이

### ○ 중소기업 경영실태, 전기보다 5.0포인트 개선 (경제산업성, 9/30)

- 저점을 찍고 반등하려 하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
  - 7~9월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-38.4로 전기에 비해 5.0포인트 개선

### ○ 8월 소비자 물가 과거 최대 하락폭, 전년동기비 -2.4%, (총무성, 9/29)

- 6개월 연속 하락. 유가 하락과 엔고, 불황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가 원인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### ○ 하토야마 총리 한국방문. 10월 10일 베이징 회담 앞서 9일 예정

- △한일관계 개선, △북한 핵·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 
△ 동아시아 공동체 협의 △일왕 한국 방문 등 논의 예정
  - 관련해서 9월 30일 유명환 외통부 장관, 하토야마 총리 예방·공식 요청
- 한중일 정상회담은 10월 10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3국간 합의

### ○ 미국정부, 하시모토 총리의 '동아시아공동체'에 강한 반대 (9/28)

- 하토야마 총리가 UN총회에서 밝힌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 정부는 '미국을 뺀 구상'이라며 강하게 반대

### ○ 자민당 신총재에 타니가키 사다카즈(谷垣禎一), 60% 득표로 당선(9/28)

- 24대 총재에 선출된 타니카키씨(64세)는 문부대신을 지낸 타니가키 센이치(谷垣專一)의 장남으로 변호사출신, 9선 중의원, 재무상 역임
    - 소비세 인상(10%)을 통한 재정안정, 아스쿠니 신사참배 반대와 한중일 정상 핫라인 구축,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혁 등 주장
  - 타니가키 체제의 자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협의체와 민주당의 다음내각과 같은 쉐도우케비넷을 설치·운영하기로함
- 하토야마 총리 부인 배용준 출판기념 이벤트 참석, 10분간 간담 (9/30)
- 내년도예산요구 다음달 15일까지 재편성 지시 (9/29)
- 토요타, 자동차용 합성수지 그룹일괄조달 (9/29)
- 토요타자동차는 화학메이커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코스트를 삭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합성수지 그룹일괄조달 실시

## 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1달러 88엔23전까지 급등. 나오시마(直嶋) 경산성장관 국내산업 영향 분석 지시 (9/28)
- 시장은 민주당 정권의 용인으로 엔고가 가속되고 있다는 인식
    - 후지이 재무장관의 '지금의 트렌드는 정상이다'라는 발언이 엔고를 부추겨
  - 일본 경단련 미타라이(御手洗)회장은 '더 이상 엔고가 진행되면 수출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.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'고 강조
    - 수출산업 대부분은 1달러 90~95엔 정도를 희망
  - 나오시마(直嶋) 경산성장관은 최근의 엔고현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산업 영향 분석을 지시
- 엔고로 전략전환 압박. 하반기, 자동차에서만 1000억엔 수익감소

- 엔고가 88엔대로 진행될 경우 일본 국내 자동차 주요 7사의 하반기 영업이익 감소가 약 1000억엔(1조 3천억 수준)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체제 개혁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
- 닛산자동차 간부는 '1엔이 올라가면 연간 110억엔의 수익저하로 신협국에서 얻은 이익이 일순에 없어진다'며 우려

#### ○ 소규모공장 · 농가 엔고에 분노와 탄식

- 동경에서 기계제작소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'80엔대로 올라갈 줄 몰랐다. 1엔 올라가면 종업원 1명분의 인건비(40만엔)가 날아간다.'
- 엔고에 의해 수입야채와 과일의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는 탄식. 대만과 중국, 싱가포르 상위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산물 수출에도 영향

##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일본경제의 버팀목, 부품 · 소재 산업’, 삼성경제연구소, 2009. 9. 29.

#### ○ ‘對日 상대적 무역수지 상반기 사상최악’ - 일본 부품 · 소재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비롯

- 일본과의 ‘상대적 무역수지 비율’이 올해 상반기가 역대 최저 수준이며 생산 활동을 늘리려면 반드시 부품 · 소재를 조달해야 하므로 경제위기 이후 대일 의존도는 더욱 심해질 것
- ‘상대적 무역수지’ 절대 값이 2000년 0.56에서 지난해 1.21까지 내려갔지만 일본의 수출이 주춤한 지난해 4분기 0.98로 다소 호전됐다가 올 올해 상반기 1.28로 다시 하락(사상최악)

※ 상대적 무역수지 = 대일 무역수지 / 대일 수출액

- 부품 · 소재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고, 우리 기업들이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비롯

- 대일 수입 중 부품·소재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2/4분기 현재 61.7%를 차지

#### ○ ‘부품·소재 수출 확대전략’이 일본경제의 버팀목

- 일본 경제에서 수출은 내수축소를 보완하는 역할.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부품·소재 산업은 일본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음
-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품·소재 수출이 일본 전체 수출을 견인
- 가공조립 부문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관하고 고부가가치의 부품·소재 부문을 강화. 또한 불황 속에서도 R&D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압도적인 세계시장 점유율 유지
- IT관련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최종제품이 25%인데 비해 소재는 66%

☞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최종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생산 감소를 관련 부품 판매로 만회

#### ○ ‘한일 FTA 협상 재개 전제조건’으로 ‘부품·소재 산업 협력방안’ 마련

- 부품·소재 기반이 약한 한국은 회기적인 전환이 없는 한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가 쉽지 않은 구조
-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 협력이 진전될수록 산업특화 현상이 심화되어 일본 부품·소재 산업에 대한 의존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전망
-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환경·에너지 등 차세대 틈새사업 분야를 발굴, 집중적으로 육성·지원할 필요
- 미국·EU와의 부품·소재 협력 가능성 시사를 통해 대일 협상력을 제고하고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한일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‘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부품·소재 산업 협력방안’ 제시